

무주군 로컬 JOB센터 운영

3억8000만원 들여 구인·구직 발굴 매칭,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진행

구인·구직 연결을 전담할 무주군 로컬 JOB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무주군 로컬 JOB센터는 무주군이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설치·운영하게 된 것으로 지역 내 고용률 제고를 위해 올해만 국비 3억 원이 투입된다.

무주군 로컬 JOB센터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협력망(이장단 등)을 구축해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며 △찾아가는 읍·면 취업서비스 추진과 △취업알선, △구인·구직에 관한 정

보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을 위한 동행면접과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 로컬 JOB센터 김선태 센터장은 "무주군과 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전주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을 맡는다"라며 "구인·구직자들의 절실함을 헤아린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로컬 JOB센터는 무주읍 소재 전북은행 건물 4층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무주군청 앞 구)관광안내소에서 평일 구인·구직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인·구직 연결을 희망하는 주민은(개인, 기업, 단체)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063-322-9297) 신청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숲가꾸기사업 대대적 추진

총 면적 1380ha 21억4000만원 투입

장수군은 15일 산지자원화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예산 21억4000만 원을 투입해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군은 총 면적 1,380ha에 큰나무가꾸기 130ha, 어린나무가꾸기 150ha, 조림지가꾸기 1,100ha 등을 통해 조림을 조성한다.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면적 130ha에 예산 2억2000여만 원을 투입해 이달 중 사업 발주 계획이며, 150ha면적의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4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 조림지가꾸기사업은 6~7월 중 추진해 조림목의 건설한 입목 생장을 촉진시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확보해 아름답고 푸른 숲을 가꿔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8명과 임업기계운용원 페트를 5명을 투입해 생활민원 피해목 제거 활동

을 펼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수집된 산물을 독거노인들에게 땀감으로 전달하고 벌채원목은 마을에서 수급 증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문민섭 과장은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조림지가꾸기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 숲이베기는 각사업의 조기발주로 농민이 임여인력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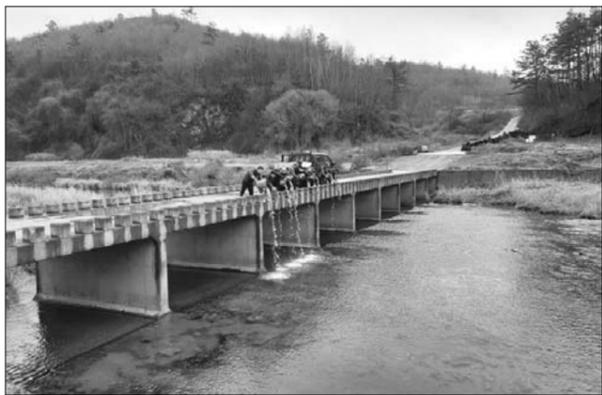
진안군 은어 치어 5만여 마리 방류

쏘가리·대농갱이도 방류 계획

진안군은 지난 15일 섬진강 일원인 성수면 좌포리에서 내수면 특성에 적합한 은어 치어 5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은어는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에서 무상 분양한 종자로 공무원과 어업계, 주민 10여 명이 참여했다.

군은 이번 은어 방류 이후에도 6~10월에 쏘가리와 대농갱이를 추가로 무상 분양받아 방류할 계획이다. 6월 뱀장어 치어 방류를 시작으로 다슬기, 붕어, 동자개, 자라, 쏘가리 등 약 420만여 마리를 용담호 및 공공용수면에 방류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지난 15일 섬진강 일원인 성수면 좌포리에서 내수면 특성에 적합한 은어 치어 5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또한 수산 생태계 활성화 및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수산종자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가 소득 증대와 생태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치어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를 확대하여 내수면 자원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1회 무주구천동 덕유산고로쇠축제가 지난 16일과 17일 양 일 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구천동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됐다.

무주구천동 덕유산고로쇠축제 성료

고로쇠 음식 나누기, 수액마시기, 전통놀이 등 개최

제11회 무주구천동 덕유산고로쇠축제가 덕유산고로쇠영농조합법인 이 주최·주관한 가운데 지난 16일과 17일 양 일 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구천동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됐다.

16일 열린 개회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군의회 유승열 의장, 문은영 의원, 전라북도의회 황의탁 도의원 등 내빈을 비롯한 주민과 관광객 2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과 고로쇠 축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덕유산고로쇠 수액이 축제를 통해 주민소득을 높이고 주민회합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기폭제가 된다는데 큰 기쁨을 느낀다"라며 "맛과 품질, 효능 면에서 단연 으뜸인 덕

유산고로쇠가 모조록 관련 임가 소득원으로서, 또 청정무주의 명성을 높이는 보물로서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념식 이후 각설이 품바공연으로 이어진 축제는 노래자랑과 고로쇠 인절미 떡매치기, 고로쇠 빨리 마시기 대회,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가 진행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덕유산고로쇠영농조합법인 고낙춘 대표는 "올해도 덕유산고로쇠 수액을 맛보시기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 보람을 느낀다"라며 "무주구천동의 아름다움과 깨끗함을 담고 있는 고로쇠 수액이 미세 먼지로 혼탁해진 세상을 씻고 건강을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3월 말까지 정성껏 채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로컬푸드 수요 대응

직매장서 가공품 판매 시작

진안군이 농산물 가공 수요에 대응하고 고가 장비와 시설 구비가 어려운 농가 현실을 반영해 직접 운영 중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494㎡ 규모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홍삼 순액, 천마 분말 등 4가지 유형 18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동결건조기, 금속검출기 등 75여 종의 가공장비를 갖추고 소규모 HACCP 인증을 취득하여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이곳에서는 농산물 11톤을

가공하여 4억1100만 원의 농가매출을 올렸다.

특히, 지난달 전주 호성동에 위치한 진안 로컬푸드 개장에 맞춰 소비자가 부담 없이 구매 할 수 있도록 소포장 디자인으로 포장지를 개선하여 소비 트렌드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군은 올해 HACCP, 식품위생법 등 안전한 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가격 하락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한 소득창출 마케팅 교육도 병행 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폐회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는 지난 15일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건의 심의안건 중 6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심의안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관광과에서 상정한 ▲마이산 관광단지 유원시설용지 활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자선도지구 지정용지 토지매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의 심의안은 신중한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4,508억 원 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본예산 대비 5%, 2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타당성 검토 등 예산 심의를 통해 23건 57억 원 을 삭감했다.

한편,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도 선임했다. 대표 감사위원으로는 김광수 의원이, 민간위원으로는 이부용, 김명기, 성양호 씨가 선임되었다. 이들은 2018년도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꼼꼼히 찾아보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갑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주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농촌지도자 복숭아분과 연합교육

무주군은 관내 농촌지도자 복숭아분과 회원 80명이 지난 14일과 15일 전남 고흥·순천 일원에서 과학 영농 실천을 위한 연합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지도자회의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무주 지역에 맞는 수형을 찾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14일에는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고재권 팀장으로부터 남쪽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과 여름철 재배기술 및 병해충 방제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15일에는 고흥과 순천에 소재해 있는 선진 농가를 찾아 수형별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품질 복숭아생산을 위한 수형 및 과원 관리법을 직접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복숭아연구회 유종석 회장은 "군 농가들의 관심과 실천도 생산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연합교육이 우리 회원들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고품질 반딧불 복숭아 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